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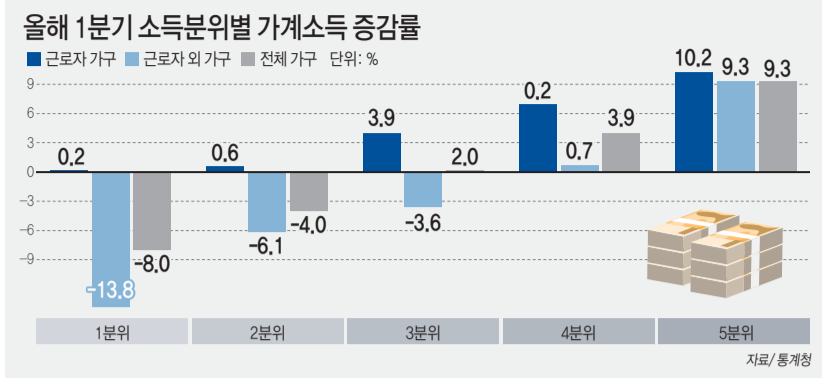
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 209만원 벌어 '한달살이'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더 이상 알바를 써서 수익이 남지 않아 부부가 맞교대로 24시간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가게 알바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에서 누가(자영업이라도)창업할까 의문이다.”(PC방 사장 A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보다 사정이 좋았다. 곳곳에 커피숍이 들어서면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올라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한 없이 오르는 임대료도 걱정이다. 10년 가장 장사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커피숍 사장 B씨)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28%'
근로자 평균급여 한참 밑돌아
경기동향도 3개월 연속 하락

자영업자로도 불리는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사면초가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쟁은 심화돼 하루 하루 먹고 살 걱정만 늘어나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걱정에 한숨만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월급쟁이가 아닌 근로자의가, 즉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 숫자의 85.6% 수준에 달하고, 고용도 36.2%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치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한 달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1인당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을 한참 밑돈다. 가구당 부채보유액도 자영업자는 1억87만원으로 월급받는 상용근로자(8062만원)보다 많다. 처분 가능한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 비율도 자영업자는 166.8%로 107.8%인 상용근로자보다 월등하다. 자영업자들은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동원하고, 통장을 깨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실도 암울



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5월 전국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1년전에 비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가 38.7%, '다소 어려워졌다'가 50.3%다. '다소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작 2.8%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81.4%는 1년전에 비해 매출이 10~3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5.8%만이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직면하고 있는 경기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달 한 차례씩 조사해 발표하는 경기동향(BSI)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소

상공인 체감 BSI는 62.2로 전월에 비해 9.4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 0.8p 떨어졌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이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체감 BSI는 2014년 3월 당시 102.9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100을 넘지 못했다. 내수 침체와 소비 심리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임대료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주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에겐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시름 많은 소상공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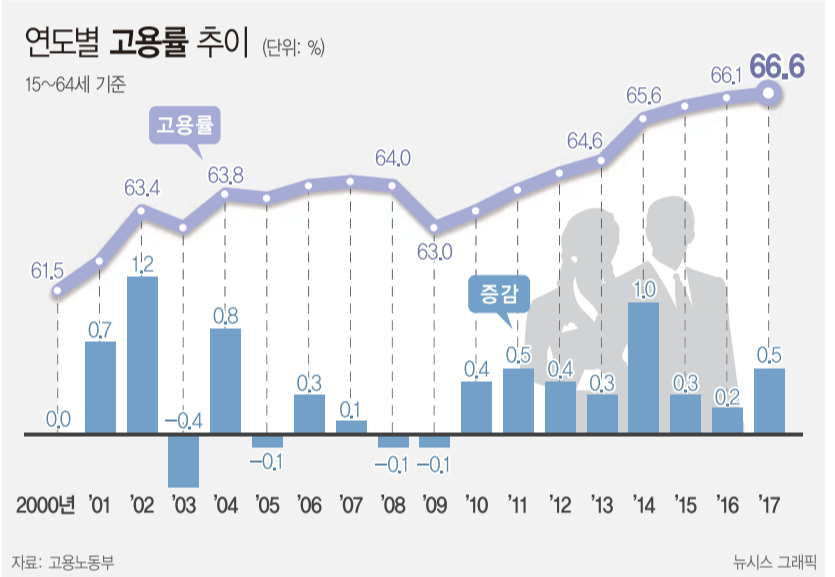
정규직 1.9만원 벌 때 비정규 1.3만원 '2/3'

울산근로자 임금 최고
근로시간은 서울 최단
총생산액 최고 수도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에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명 대내외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상대

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작년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만3053원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2179원이었고 월 노동시간은 159.5시간이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전년

(120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53건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8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로, OECD 29개국 중 7번째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70.2%)은 19번째였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순위에서 뒤쳐졌다. 한국의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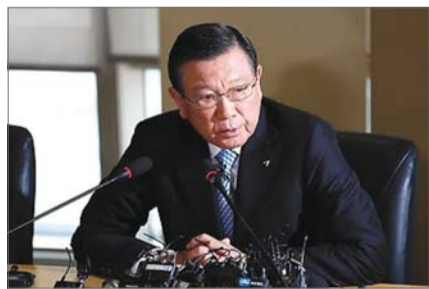
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박삼구 사과에도 '기내식 대란' 확산 조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확산돼 경영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압박감을 느낀 기내식 공급 업체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시아나를 향한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영진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다.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납품 업체를 교체하면서 촉발됐다. 아시아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새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코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받기로 했지만, 올해 3월 신

축 중인 GGK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임시로 3개월간 중소업체인 샤프도앤코 코리아에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가 샤프도앤코 코리아와 맺은 계약은 30분 이상 공급 지연 시 음식값의 절반만 지급하고, 15분 지연 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 기내식을 제때 받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장거리 항공편이 잇따라 발생했고, 출발 시간을 맞추려 '노Meal'(No Meal) 상태로 기내식 없이 이륙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2일에는 전체 75편 중 10편이 늦게 출발했다.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노Meal' 운항은 1일 36편, 2일 28편에 달했다. 3일은 21편이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고 4일에도 24편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4일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대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항공기의 기내식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업체와 계약한 점에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하루 2만5000식~3만의 기내식을 공급해야 하는데 샤프도앤코의 하루 기내식 생산량은 3000식이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수요를 감당하려면 약 500명 규모의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샤프도앤코는 직원 수는 63명에 불과하다. /양성문·정연우 기자 ysw@

반도체 호황에 경상수지 흑자 '최대치'

연휴 해외여행으로 여행수지는 '부진'이었지만 5월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나왔다"며 "수출이 아직 견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22억 7000만달러 흑자다. 현재 속도라면 한은의 상반기 전망(280억달러 흑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는 113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작년 11월(114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였다. 상품수출이 537억8000만달러로 작년 9월 이후 최대인 영향이 컸다. 수입은 42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6월 통관 기준 수출이 약간 마이너스(-0.089%)였지만 영업일수가 전년보다 1.5일 빠졌고 선박수출 기저효과도 있었다"며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수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유커(遊客)'가 돌아옴에도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여행수지는 부진이 계속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5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86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적었던 전월보다 늘어나며 작년 9월(122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당지급이 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